

인공지능 시대에도 살아남는 직업: 학습법(과 적용법)을 배우다

I. 불평등은 심화되고 자동화는 가속화된다—예측보다 준비가 중요하다.

Anthropic의 최신 경제 지수 보고서는 제가 감지해 온 두 가지 추세를 확인시켜 줍니다:

- 기업에서 AI는 인간 보완보다 자동화에 더 많이 활용된다—API 사용의 77%가 자동화다.
- 부유한 국가들은 앞서 나가고 있는 반면 가난한 국가들은 뒤처지고 있습니다; 1인당 선두 국가들은 인구 규모 만으로는 예측할 수 없는 수준으로 클로드(Claude)를 다중 활용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 상황을 판단할 수는 없지만 다가올 변화에 대비할 수는 있습니다.

II. 교육과 과학 분야가 코딩 바로 뒤를 잇고 있습니다. AI는 학습과 실행을 위해 활용되고 있습니다.

코딩이 여전히 우세합니다(~36%). 그 바로 뒤를 교육과 과학이 따르며, 이 분야들은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카테고리이기도 합니다. 이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사람들은 AI를 단순히 생산에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지식 흡수—즉 통찰력의 소비자와 생산자 모두로서 학습하고 실행하는 데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경력 측면에서 유일하게 지속 가능한 역할은 전문적인 학습자이자 실행자가 되는 것이다. AI가 개인 교사로 기능함에 따라 병목 현상은 더 이상 정보 접근이 아니라 추진력이다. 진전이 선천적 소질에 의존하던 시절과 달리, 영향력을 발휘하는 새로운 공식은 더 단순해 보인다: 명확성 × 추진력, AI로 증폭된다. 더 이상 순수한 지능이 아니라 올바른 질문을 던질 수 있는 명확성과 그 답을 추구할 추진력이 핵심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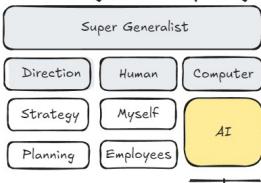
이러한 현실은 생존을 위한 두 가지 실행 가능한 길을 제시한다:

- **마스터 제너럴리스트(만능 재주꾼).**
 - 비즈니스 측면에서는 마케팅과 재무부터 운영에 이르기까지 **비즈니스 스택 전체를 총괄하며, 법률 고문과 같은 초전문직을 제외한 모든 업무를 처리할 수 있을 만큼 자동화와 코딩에 능숙해야 합니다.**
- **유연하고 부분적인 형태의 심층 전문가.**
 - 일반 전문가들이 일상 업무를 처리하는 동안 어려운 문제에 대한 핵심 전문가 역할을 수행합니다(금융/운영 분야의 '분할형' 모델을 생각해보세요).

이러한 역할과 인간이 여전히 필수적인 이유를 시각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Either be a polymath—super generalist—or a savant—Function/Domain-expert

1. Being the super generalist



New frontier for managers. Before only programmers needed to know about comput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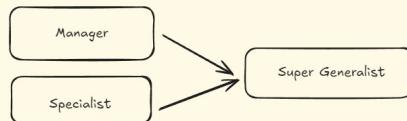
2. Function/Domain-expert



This effect would be especially pronounced in start-up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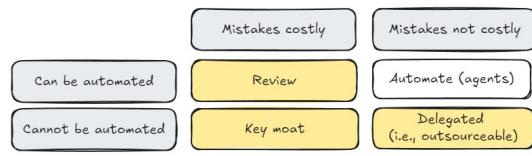
💡 Both managers and specialists can evolve into Super Generalists.

* This could be the easier or the more efficient path for most people as there's a law of diminishing return at play.



Humans remain essential for

(1) high-stakes review & refinement and (2) tasks that cannot be automated.



How to find this moat will be explored and explained in the upcoming articles.

III. LLM 이전에도 자본의 레버리지는 이미 상승 중이었으며, AI는 이러한 역학

을 더욱 강화할 뿐이다.

생성형 AI 이전에도 빅데이터와 프로그래밍은 자본과 희소 기술 역량에 대한 수익률을 확대해 왔습니다. LLM은 이러한 압박을 창출하지 않으며, 기존 시스템을 증폭시킬 뿐입니다. 자동화가 확대됨에 따라 자본의 레버리지는 더욱 상승합니다. 사회가 균형을 모색함에 따라 로봇세와 재분배에 대한 논쟁이 더욱 격화될 것입니다.

IV. 전업 학습으로의 과감한 전환을 선택한 이유와 지금 복귀하는

이유.

2014년부터 평생 학습자 마인드를 가져왔지만, 일하면서 틈틈이 배우는 건 너무 느렸습니다.

느렸습니다. 변화의 규모와 속도에 발맞추기 위해, 저는 그 학습을 야간이 아닌 하루의 중심에 두고 전념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전업 학습으로 과감히 전환하며 세 가지를 가속화했습니다:

1. 학습 기술을 폭넓게가 아닌 깊이 있게 적용하기.
2. 더 강력한 비즈니스 및 전략적 판단력 개발.
3. 분석 및 통계 기초 역량을 강화했습니다.

곧 졸업하여 비즈니스/전략/기획, PMO, 비즈니스 분석, 제품 소유권 또는 재무 분야를 아우르는 역할로 업계에 복귀합니다.

저는 전문적인 학습자이자 실행자로서의 마인드셋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역할 내에서 학습을 지속하고, 결정을 내리며, 규율을 부여하고, 실행이 가장 어려운 순간에 현장의 책임자로서 역할을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마무리 생각: AI는 IQ가 아닌 추진력을 증폭시킵니다.

AI는 당신의 원초적 지능을 높여주지 않지만, 그 지능으로 하는 일을 엄청나게 증폭시킵니다.

만능 전문가(Swiss-army-knife generalist)가 되든 핵심 분야 전문가(go-to expert)가 되든, 핵심 임무는 동일합니다: **명확하게 학습하고 추진력 있게 실행하는** 것입니다. 장점은 선점자 우위가 그 어느 때보다 쉽게 접근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시작에 대규모 팀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AI에 업무를 위임하고, 대형 경쟁사보다 빠르게 움직이며, 속도, 정확성, 적용 학습을 통해 경쟁 우위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성공하는 경력은 끊임없는 학습과 실행 위에 세워집니다. 변화를 받아들이세요.